광남일보

조간 제796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음력 9월 21일)

광주 군공항 이전, 올해 안에 밑그림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답변
전진숙 "서남권 성장 축 여는 과제, 로드맵 제시를"
이전 후보지 선정·지원계획 마련 등 급물살 기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올해 안에 '6자 협의체(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혀 이전 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큰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고,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의 질의에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느냐'고 전 의원이 묻자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부지와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기부 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자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 지시로 구성됐다. 6자는 군 공항 이전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전 사업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공식 첫 회의는 여태껏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6자 TF를 공식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4개월 여 진행해온 대통령실은 이날 '올해 안에 TF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6자(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통령실의 주도로 회의가 진행되려면 사전 실무 협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쟁점이 일단락돼야 가능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기본틀'에 대한 6자의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부지'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나 인센티브 등의 모든 논의가 겉돌게 된다.

대통령실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부터 공모하자'는 무안군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밝혀 우선 이전부지를 무안공항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힘을 쏟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등 3대 우선 조건을 제시했던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16일 "6자 TF에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도 "우선 6자 TF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또 '사업비 마련 원칙'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법으로 정한 이전사업 원칙인 '기부 대양여'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무안군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광주시가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찾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TF가 공식 출범하면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지역 지원계획이 등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주민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해 이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가을엔 따뜻한 커피 한잔 어때요" 광주 동구 대표 축제인 '제5회 동명커피산책'이 지난 8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부설주차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동명커피산책은 광주의 유일한 커피축제로 광주 유명 커피업체 및 바리스타들의 참여해 커피 무료 시음행사와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돼 지역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진 감성형 로컬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KTX 산천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용산-익산구간〉

17일부터 하루 4편 중 상·하행 2편…정준호 의원 "코레일과 협의 성과"

광주지역 교통 숙원사업 중 하나인 KTX 호남선이 개통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편된다.

지난 2015년 개통 이후 지속돼온 'KTX 불평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존 용산~익산역을 오가는 KTX 산천 열차 4편 중 상행선과 하행선 각 1편씩 총 2편이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상행선은 오전 6시25분 익산역 출발 열차가 오전 5시52분 광주송정역 출발로, 하행선은 오후 9시9분 용산 출발열차의 종착역이 익산(오후 11시13분)에서 광주송정역(오후 11시44분)으로 각각 변경된다.

호남선 KTX는 2005년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시간과 요금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경부선보다 11년 늦은 2015년에야 개통되면서 '지역차별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시의회·광산구의회 의장은 지난 9월 광주송정역에서 '호남선 KTX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코레일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부선은 2015년 이후 주말 기준 21편이 늘어난 반면 호남선은 단 1편에 그쳤다"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에도 호남선은 주중·주말 13회로 동일하지만, 경부선은 27회에서 주말에는 31회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열차 배차뿐 아니라 차량 규모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컴퓨팅센터 무산 광주, 국가 NPU 센터 도전

〈신경망처리장치〉

안도걸 "광주 구축" 제안…김 총리 "대안 속도감있게 마련"
시, NPU센터 구축 예산확보 추진…정부 수용 여부 '주목'

광주시와 정치권이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구축'을 꺼내 들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광주시와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광주가 AI컴퓨팅 자원과 연구, 인력 양성 기능이 하나로 집적된 국가 AI시범도시가 돼야 한다"며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와 '국가 AI연구소 광주 설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AI 집적단지 2단계인 광주 AX실증밸리 계획과 연계해 AI 추론 단계 실증을 위한 전용 컴퓨팅 자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며 "외산GPU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NPU를 실증하기 위해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NPU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도시생활 AX(인공지능 전환)나 연구·개발 실증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 광주를 AI 시범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과기정통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광주가 AI 시범도시 구축에 저도 관심을 갖고 관여했기에 저 또한 아쉬움을 광주시민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5일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인공지능 전환(AX) 시티와 6G, 한국형미래도시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선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NPU 전용 컴퓨팅센터 유치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등이 본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성오·이승훈 기자 solee235@